

1998년-2001년 노숙자 사망 실태 분석 - 서울시를 중심으로 -

주영수, 권영준, 정일용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/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

2002년 3월초 현재, 서울시내 전체 노숙자수는 3,176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, 그 중 거리에 31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전체 노숙자수를 보면 초창기에 비하여 1,5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. 노숙자 사망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. 단순히 거리에서 사망한 채로 확인되는 형태는 전체 노숙자 사망 중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고, 많은 경우는 사망하기 전에 '행려자'로 시립병원 등 국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. 본 연구는 전체 노숙자 사망자수를 국공립 의료기관내 행려병자중 사망자 + 거리 사망자로 실행적 정의를 하였다. 단, 이중에서 신원미상의 자살, 영유아사망, 교통사고 사망 등 노숙자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망례들은 제외하였다. 자료분석결과 1998년 479명, 1999년 467명, 2000년 413명, 2001년 11월말 현재 313명 등 최근 4년동안 총 1,672명의 사망례가 확인되었다. 그 중에서 2000년의 경우는 다른 해와는 매우 달리, 거리 사망자가 219명으로 의료기관 사망자 194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이는 2000년 하반기 '거리 사망자'의 급증과 동시에 '의료기관 사망자'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. 이 현상은 행려환자를 전담해왔던 공공의료기관들의 2000년 하반기에 벌어진 의료대란시 진료기능 저하로 인하여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추측된다. 월별 평균 노숙자 사망자수를 보면, 의외로 거리 사망자가 6월에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이는 노숙자 동절기 대책(동사방지 대책)에 상응하는 '노숙자 하절기 대책'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 또한, 2001년 1월에 비해 11월말 현재 전체 노숙자 수로 750명 정도가 줄어든 현상이 확인되는데, 이 줄어든 750명 중에는 2001년에 사망한 313명이 일정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.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, 노숙자 건강문제 중에서 '사망자수' 감소를 위해서는, 지금보다도 더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.

Keywords : 노숙자, 사망자수